



Faith and Climate Change:  
A Christian Perspective.

## 왜 기후위기 문제가 교회의 문제인가요?

OKCC 전도구제부 기후위기대책모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기후변화 (climate change) 문제가 기독교 구원, 신앙과 무슨 관련이 있길래 선교, 전도, 구제, 교육 등 많은 사역으로 바쁜 교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까? 왜 교회가 기후변화 문제에 민감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오타와가 겪었던 산불로 인한 피해와 역대 가장 따뜻했던 올해의 오타와 겨울날씨와 같은 이상 기후 현상 및 극심한 자연재해는 전세계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아쉽게도 심각한 사례들은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변화가 인류의 생존, 평화, 행복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2007년 기후변화연구 관련 업적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등 전세계 상당수 기후 과학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멈추기 위해서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강도 높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IPCC가 노벨물리학상이 아닌 평화상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대충 짐작할 수 있겠죠? IPCC는 2023년 3월의 6차 평가 보고서(AR6)에서 2030-50년을 전후로 생태계 자정능력의 한계점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예측하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기후위기라는 현상이 최근 수십년 사이에 발견된 새로운 현상이기에 2천여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찾아내려는 시도 자체가 어불성설일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신앙 측면에서 관련 구절을 얘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22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19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1절)”** 피조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과학적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와 생태계의 위기가 신앙과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류와 자연만물을 구원할 통로로 세운 우리 교회가, 온세계의 복음화에 힘쓰는 한편 동시에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사회와 지구생태계가 구원 불능 상태에 이르기 전에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전세계 많은 교회들과 영적지도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와 지구 생태계가 겪는 위기를 신앙의 문제로 인식하고 기독교인들의 각성과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존경하는 존 스토틀 목사는 그의 책 <제자도>에서 창조된 환경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의무임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성경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볼때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와 생태계가 당면하는 위기를 지구가 직면한 위협 중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설파합니다.



“제자도의 몇몇 측면이 무시되고 있음을 짚어 가면서, 우리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만 제한하여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의무를 더 넓은 시각으로 보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창조된 환경을 돌보는 일이다.

(중략) 이러한 건전한 성경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현재의 생태계 위기를 보아야 한다. 다양한 탐구가 진행되어왔지만 모두 다음의 네 요소를 포함하는 것 같다. 첫째, **인구 성장의 가속화**. 둘째, **지구 자원의 고갈**. 셋째, **쓰레기의 처리**. 넷째, **기후변화**. (그런데) 지구가 직면한 전 세계적인 생태계의 위협 가운데 기후변화가 가장 심각하다.

(중략) 기후변화는 복합적인 문제다. 지구 표면의 온기는, 태양광선의 복사와 지구가 공간으로 방출하는 적외선 복사의 조합으로 유지된다. 온실가스에 의한 대기 오염은 적외선 방출을 감소시켜 지구 표면의 온도를 상승시킨다. 이것이 이른바 ‘온실 효과’다. 이것이 세계의 지형과 기후에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지구 온난화의 공포다.” **존 스토틀 - 제자도**  
목사님께서 과학적 설명을 하시니 좀 낯설은가요?

“하나님의 선교”로 유명한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는 창조세계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면, 또 예수의 제자라고 주장하면서 그분의 소유인 이 땅에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 나에게 너무 불가사의하다. 그들은 이 땅이 오염되는 현실에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낭비와 소비의 생활 방식으로 이 땅의 오염에 동참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에 창조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반영되도록 하셨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 하나님의 선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39)**”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가장 작은 이들 중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마태복음 25:40-45)**”. 우리가 가장 적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돌볼 때, 우리는 예수님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그리스도를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의 타락으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응해야 합니다. 참으로 불공평하게도 탄소배출은 부자 국가의 책임인데, 피해/고통은 가난한 국가에서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캐나다 오타와에 비해 기후위기로 인한 훨씬 더 큰 피해를 가난한 나라들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방식이 환경과 이웃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정하고 이런 무절제와 태만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이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회복을 위해 기도를 올려드릴 수



EARTH DAY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먼저입니다.

어떻습니까?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로 인류와 생태계가 겪고 있고 또 처하게 될 위기가 여전히 교회의 선교, 전도, 구제 등과 같은 급의 그리스찬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시나요?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인류와 생태계가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이 저희가 먼저 회개하고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계3:20) 아멘